

# 지역중소 성능인증 받으니 매출 쑥쑥

## 정부서 기술 보증...공공구매 많은 혜택 광주·전남 취득 건수 작년비 66% 늘어

#1. 광주 소촌산단 내 제조설비전문기업 한일종합기계(주). 2년여동안 8억원을 투자해 '벨트 컨베이어 아이들러 감시시스템'을 개발했다. 하지만, 제품 성능이 우수했지만 구매 담당자들은 믿지 않았다. 회사는 광주·전남중소기업청에 이같은 예로를 상담했고, 중기청은 성능인증 획득을 권했다. 회사는 중기청의 도움을 받아 성능검사·제품심사 등을 거쳐 지난 1월 성능인증서를 획득했다. 이후 성능인증서 덕에 당진화력발전소와 2억원 규모의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2. 화순에 있는 (주)포커스테크

는 호남대와 공동으로 2년간 연구해 '범법차량 검거를 위한 차량번호 인식 및 검색 DB'를 개발했다. 제품 우수성이 인정돼 중기청으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았다. 이후 인천경찰청·서울경찰청 등과 6억원 규모의 구매계약이 성사됐다. 매출이 크게 늘면서 직원도 2명 더 채용했다.

중소기업청의 성능인증제도가 광주·전남지역 기술 중소기업의 효과 역할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 진출이 편해지면서 매출이 늘고, 고용 창출 효과도 거두고 있다.

1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 따

르면 지난 2006년 이후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가운데 성능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150개사, 제품 수는 195개 품목이다.

성능인증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2010년 19건, 지난해 23건이 성능인증을 받았다. 올해 들어서는 7월 말까지 총 36건이 접수돼 이 중 20건(16개사)이 승인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2건(28건 신청)과 비교하면 66.7% 증가한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2087건(지난해 말 기준)이 인증됐다. 이 중 광주·전남은 7.8%인 175건을 차지해 비교적 높은 발급률을 보이고 있다.

성능인증을 받은 광주·전남 중소기업들은 평균 매출이 30% 이상(5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성능인증을 받으면 공공 판로

에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성능인증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검사를 거쳐 제품 성능을 확인해주는 것으로, 일종의 정부가 보증하는 '성능보증'이다. 공공기관은 성능인증제품의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 구매할 수 있고, 만약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구매자는 면책을 받는다.

또 공공 구매 효과가 큰 조달청의 우수제품 등록시 성능인증서는 필수여서 인기가 더하고 있다. 실제 성능인증 신청 기업의 85%가 조달청 우수제품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중기청 관계자는 "성능인증서는 조달청 우수제품등록의 필수 조건"이라며 "이로 인해 최근 기술 중소기업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은행 '365코너' 자동화기기 1대당 하루 금융업무 150건씩 처리

### 전국 410곳 운영...통장정리-출금 순 이용

광주은행의 '365코너' 이용고객들은 주로 통장정리와 출금 등 간단한 금융업무에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은행은 지속적으로 365코너를 늘려 지역고객의 금융편의 제공과 고객들이 물리는 월말이나 명절 전날 등에 업무부산 효과를 특별히 거두고 있다.

1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광주은행 365코너 이용 고객의 26.18%가 간단한 통장정리를 하기 위해 가장 많이 찾았으며 출금 22.72%, 입금 7.32%, 이체 7.10%, 기타(잔액조회, 거래현황조회 등) 36.69%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말 현재 광주은행이 운영하는 365코너는 광주 269곳, 전남 139곳, 서울1곳, 전북 1곳 등 총 410곳이다. 이 가운데 24시까지 운영하는 코너는 광주 56개, 전남 10개다. 자동화기기는 총 850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5만원 입출금 가능 기계는 850대 중 511대다.

고객들이 365코너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4시로 나타났으며 하루평균 자동화기기 1대당 평균 약 150건의 금융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특히 최근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지속되는 날씨로 인해 평균 26도로 유지되는 광주은행 365

코너는 짧은 약속장소나 피서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의 269곳 365코너중 이용고객이 가장 많은 곳은 북구 일곡동 지점 365코너로 총 6대의 자동화기기가 설치돼 하루 평균 1대당 약 600건의 금융업무가 처리되고 있다. 일곡동 지점은 하루평균 창구 이용객만 400여명으로 아파트단지 상가가 밀집돼 주부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365코너 및 자동화기기를 고객 금융편의 제공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더욱 늘려 나갈 계획"이라며 "노후기 교체를 통해 장애 발생 최소화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7월 광주·전남 물가 0.3% 하락

### 작년 같은달 보다는 1% 올라...상승세 둔화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가 전년보다 0.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2012년 7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 동향'을 조사한 결과, 광주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3(2010년=100)으로 전월보다 0.3% 하락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1.0% 상승해 작년 12월 4.2% 상승을 기록한 이후 3.3%, 2.9%, 2.4%, 2.3%, 2.2%, 1.7% 등 전년동월비 계속 둔화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생활물가지수는 104.6으로 전월보

다 0.6%, 전년 같은 달보다 0.1% 각각 하락했다. 전국 도시 평균 105.3보다는 0.7%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품목별로는 시금치(32.1%), 상추(28.3%), 배추(26.5%), 쌀(14.6%), 감자(12.7%), 참기름(5.3%), 도시가스(4.7%), 콩나물(4.2%) 등이 올랐고, 수박(-28.5%), 감자(-25.6%), 토마토(-16.7%), 오이(-15.8%), 세탁 세제(-11.0%), 달걀(-7.7%), 풋고추(-5.8%) 등이 내렸다.

지출 목적별로 보면 전월과 비교해 오락·문화 부문에서 단체여행비, 놀이시설 이용료 등이 올라 전체적으로 1.2%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주택·수도·전기·연료 부문은 도시가스, 페인트, 전세차 등이 올라 0.6% 상승했다.

또 교통부문의 LPG(자동차용) 등이 내려 1.8%의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기타상품·서비스 부문은 1.0% 하락, 보건,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식료품·비주류음료 부문은 1.0%대 미만 하락 등을 기록했다.

전남지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8로 전월보다 0.3% 하락하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미기자 emlee@kwangju.co.kr



아시아나-日MK택시 업무제휴  
아시아나항공과 일본 MK택시는 1일 일본 도쿄 아시아나항공 일본지역본부에서 '아시아나항공-MK TAXI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아시아나항공 회원은 하네다, 나리타 공항과 동경 시내간 이동시 MK택시를 이용하면 미터요금 대비 최대 40% 할인과 결제금액 1000원당 50리 적립 혜택을 받게 된다.

(아시아나항공 제공)

## 기업채용 학력철폐 10년만에 두배 늘어

직원을 채용할 때 학력을 제한하지 않는 기업들이 최근 10년 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이 회사 홈페이지에 등록된 신입직 구직자 모집 채용공고 8만9878건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조사됐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학력에 관계없이 직원을 뽑는 곳은 전체 채용 공고 중 24.5%를 차

지해 2002년의 12.5%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대졸'로 학력을 제한한 공고 비중은 2002년 18.5%에서 2007년 11.3%, 올해 상반기 8.8%로 점차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잡코리아 김화수 사장은 "최근에는 기업들이 높은 학력을 가진 구직자보다 잠재력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연남스

## 7월 수출 8.8% 급감

### 33개월만에 최대폭...무역흑자도 크게 줄어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입이 모두 줄며 무역 흑자폭이 크게 감소했다. 특히 7월 수출이 큰 폭으로 줄며 1~7월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서 수출 동력 약화가 우려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수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8.8% 감소한 446억 달러, 수입은 5.5% 줄어든 419억 달러로 각각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수출 감소폭은 2009년 10월(-8.5%) 이후 가장 컸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27억 달러의 흑자를 내는 데 그쳐 전월(50억 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위축됐다. 1~7월 총 교역액은 6262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6251억 달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7월 수출이 크게 줄어든 것은 선박

수출 부진, 세계 경제 위축, 여름 휴가 조기 실시,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지경부는 분석했다.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 둔화로 1~7월 수출이 0.8% 감소하며 수출 동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최대 수출지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0.5% 줄었고 EU로의 수출도 4.9% 감소했다. 반면 미국(10.0%), 일본(12.8%), 아세안(11.8%) 등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수입은 3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경부는 올해 초 6.7%로 설정했던 연간 수출증가율 목표를 지난달 3.5%로 낮췄다.

/연남스

### 중기진흥공단-광주시 북미 무역사절단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정진수)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광주지역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국·캐나다 등 북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무역사절단을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

무역사절단은 10월31일부터 11월9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미국 뉴욕·시카고, 캐나다 토론토 등 북미 3개지역에서 판로개척 활동을 할 예정이다.

참가대상은 지난해 수출실적 2000만달러 이하인 광주시 소재 수출중소기업이며, 선정 기업은 현지 시장성 조사, 바이어 발굴, 단체 수출상담 우선 및 통영, 왕복항공료(30%~70%) 등을 지원받는다. 문의 중진공 광주본부(062-300-3025), 광주시 국제협력과(062-613-3942).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879.92 (-2.06)  
▲ 코스닥지수 468.53 (+0.92)  
▼ 금리 (국고채 3년) 2.83% (-0.02)  
▼ 원·달러 환율 1,126.50원 (-4.1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 대한방과후교육협회 발기인 대회 및 사업설명회

안녕하십니까!  
사)대한방과후교육협회에서 지역 교육을 이끄시는 저명한 분들을 모시고 방과후 교육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현 교육의 현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또한 미래교육을 설계하고 비전을 제시할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시어 고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향후 전국 지부망을 통해 조직적인 활동으로 내실 있고 체계적인 방과후 교육을 선도하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협회 회원, 분과장, 지부 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전·현직 교육계 저명인사 회장 및 고문, 이사, 전문위원참여)

**일정**

- 일 시 : 2012년 8월 16일(목) 14:00~16:00 (광주·전남 동시 실시)
- 장 소 : 광주교육대학교 대강당
- 문 의 : (사)대한방과후교육협회 ☎ 062) 268-0978, 011-434-4837

비 전	회원 및 지부 모집대상
1. 방과후학교 교사인증 자격증발급 2. 방과후교사 양성과정 3. 일자리 창출(고학력경력단절여성) 4. 사회적 기업 지원 5. 평생교육원운영지원 6. 법인설립지원	1. 교육계 종사하시고 계시는 분 2. 교육에 관심이 깊으신 분 3. 학원운영 경험이나, 현재 학원운영중 이신 원장님 4.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하실분
회원가입 후 진로	사업 영역
초, 중, 고 방과후 교사, 창업지원, 문화센터,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노인대학, 대학원, 생교육원, 1:1홈콜, 지역아동센터강사, 각대학 평생교육원 방과후강사 등으로 취업	수련활동(직접자수련원, 정년전리조트), 체험학습활동(공예체험, 수영등), 수학여행, 학예발표회, 축제(음향, 조명, 무대중선장식, 레크리에이션강사, 비디오회영등)

사단법인 대한방과후교육협회

##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제2006-1

### 극락전 남골당

####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메가 벗겨진 묘, 동침기를 거머쥔 불교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안락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적 해이로 전국 무덤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